

# ‘가족 컨텍스트’와 ‘텔레비전의 사용’에 관한 연구

—가족 집단별 시청 행위에 관한 민속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백선기 · 이혼주

## 1.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학문적인 담론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다. 그 이유는 ‘일상’이 특별하지 않고 반복되는 사소한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삶을 구성하는 사적인 공간과 영역, 반복적인 의례나 습관의 의미를 중심으로 ‘일상’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적인 논의가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에서 ‘일상’에 대한 관심은 주로 ‘문화주의적 입장’의 텔레비전 연구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이 특별히 텔레비전을 연구 대상으로 취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가정이라는 공간에 불박여 있는 가구와 같은 매체이고, 시청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텔레비전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문화주의적인 연구에서 중심이 되었던 ‘개별적인 텍스트와 수용자 집단의 해독’에 관한 문제에서

‘가정이라는 컨텍스트에서 텔레비전이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이 개별적인 텍스트로 분리되어 소비되기보다는 가정 내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가족 성원들에 의해 선택되고 이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텔레비전에 관한 문화주의적 입장의 국내 연구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텍스트와 수용자 집단의 의미 해독 문제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텍스트의 선호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 해독’의 문제에서 수용자들이 텍스트를 통해 얻는 ‘즐거움’의 문제로 관심을 넓혀왔다. 예가 되는 연구들에는 국승표·손병우·송미령·이은진·최준호 등의 연구가 있다.

국승표(1993)는 수용자가 종합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구체적인 즐거움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고, 송미령(1995)의 연구는 해석 공동체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이 텍스트의 의미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또 텍스트의 가부장제적인 담론이 농촌 여성들에게 새롭게 의미 해독되는 관계를 밝히고자 한 이은진(1992)의 연구가 있다. 이 밖에 개별적인 텍스트와 수용자 집단의 이원적인 관계에서 범위를 확장시킨 손병우(1994)의 연구는 텔레비전 방송 제도가 보는 시청자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텍스트, 시청자의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삼원적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 수용자 집단을 미리 정해놓고(주부·청소년·여공들 등), 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읽기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수용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경험이 의미 해독을 차이나게 하는 방식을 알아낼 수 있었지만, 수용자를 정해진 장소에 모아놓고 연구자가 선정한 프로그램을 보여준 뒤 반응을 알아본 것으로, 일상에서 텔레비전이 사용되는 포괄적인 맥락을 간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국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일상적인 가정 공간에서의 텔레비전 사용이라는 문제를 밝히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의미 해독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선택과 소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정 내의 힘들들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물리의 『가족 텔레비전』과 같은 연구들이 영국의 중하류 가족의 텔레비전 사용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를 알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는 물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부장적인 권력 관계가 지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적인 가족 상황이 가족 성원들의 텔레비전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작용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방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I. '수용' '의미 해독'에서 '사용'으로:

#### 의미 · 장르 · 컨텍스트의 문제

매스 미디어의 의미 생산에 관한 문화주의적 입장의 초기 연구들은 '의미 해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매스 미디어의 의미가 텍스트 내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성원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자 집단이 처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선호된 읽기' '타협적 읽기' '대안적 읽기'의 세 가지 해독 유형을 제시한 홀Hall의 모델과, 물리Morley와 브룬스던Brunsdon의 '네이션와이드 nationwide' 연구 등이 이러한 연구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복합적으로 소비되는 미디어 내용물 중에서 개별적인 프로그램 텍스트를 분리시키고, 수용자 집단을 구체적인 일상과 벗어나게 하고, 연구를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되는 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을 간과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매스 미디어의 '수용'과 '의미 해독'의 문제는 일상에서 매스

미디어의 전반적인 '사용'<sup>1)</sup>의 문제로 넓혀지게 된다.

이러한 매스 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연구들은 '장르'와 '컨텍스트'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장르'에 대한 관심은 텍스트에 대한 의미 해독을 넘어서서, 왜 특정한 수용자 집단이 특별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더 풍부하게 의미 해독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장르는 수용자의 선택과 기대들을 결정하는 중심 요인이자,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을 보고 듣고 읽는 데 적합한 '문화적인 능력'들과 성향들을 조직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장르'는 특별한 집단의 '문화적 능력'과 관련된다.<sup>2)</sup> '문화적 능력'이란 어떤 프로그램 장르들을 수용자들이 선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과 '일상적인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뉴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연속극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다. 많은 연구들은 여성들이 연속극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 형태를 더 선택하면서, 더욱더 풍부하고 활동적인 의미 해독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특정한 장르는 그러한 장르를 소비하는 특정한 수용자 집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텔레비전은 다양한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된 텔레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의 구분은 '사실적인 장르'와 '허구적인 장르'이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발화의

---

1) '사용 use'이라는 말은 수용자들이 매스 미디어와 맺고 있는 사회적이고, 일상적이고, 개별적인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이것은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말하는 '이용'의 의미를 더 넘어서는 말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이용은 매스 미디어 수용자 개인의 특별한 욕구 need가 만족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주의적인 텔레비전과 일상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은 커뮤니케이션 욕구의 만족에서 더 나아가, 특별한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과정이다. K. Jensen, "The Polysemy: Television News, Everyday Consciousness and Political Action,"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12, 1992, p. 63.

2) D. Morley, *Family Television* (London: Routledge, 1988), pp. 44~45.

형태'와 '대상을 지시하는 수준'이다. '사실적인 장르'는 프로그램의 화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주로 '직접 발화'로 이루어지면서,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장르에는 다큐멘터리와 뉴스 프로그램뿐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인 영화와 음악 소개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등도 속한다. 이런 사실적인 프로그램 장르와 달리 '허구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화자와 수용자 관계는 '간접 발화'로 맺어지고, 수용자는 극적인 상황과 배우들을 통해 주어지는 '상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프로그램 장르들의 구별되는 특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에게 다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수용자들이 특정한 타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해하거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문화적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

요컨대 이전의 텍스트-수용자 관계에서 '의미'에 국한되었던 연구들이 수용자들이 텍스트의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위치(보수적·진보적·타협적)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을 알고자 한 것이었다면, 장르와 수용자의 연구는 특정 타입의 프로그램과 수용자의 관련성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장르와 수용자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사실적'이거나 '허구적인' 프로그램이 주로 '성'에 따라 다른 관심과 몰두를 얻고, 다르게 사용되는 방식을 연구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먼저, '허구적인 장르'가 '사실적인 장르'에 비해 여성 수용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는다는 물리의 『가족 텔레비전』 연구가 있다. 또 '허구적인 장르'인 '쇼 오페라' 같은 것이 특별한 수용자 집단(주부)에게 갖는 의미와 즐거움을 밝히고자 한 다양한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들이 쇼 오페라 장르의 내러티브 구조에 익숙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 등의 다양한 문화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의 활발한 의사 소통을 통해 풍부한 의미 해독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쇼 오페라의 내용과

주부의 가정 생활에서 겪는 경험의 일치성을 보여주는데,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겪는 일상적인 경험들은 오페라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남성과는 달리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의미'와 '장르'에 대한 문제가 '컨텍스트'<sup>3)</sup>의 문제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텔레비전의 장르가 소비되는 다양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수용자 집단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의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 II. '가족의 사회적 관계'와 텔레비전의 '사용'

텔레비전 시청은 전적으로 가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여가 활동의 부분이며, 그러한 주장은 '어떻게 수용자들이 시청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그들이 시청하는 대상들을 의미화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sup>4)</sup> 또한 텔레비전의 소비는 개인적인 시청보다는 가족이나 가정 단위의 시청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가족 단위의 텔레비전 시청에서는 개인의 프로그램 선택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가족 내의 권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가족의 사회적 관계인 가족 성원들간의 권력 관계가 텔레비전의 사용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물리의 『가족 텔레비전』 연구가 있다. 물리는 이 연구에서 특히 가족 성원들간의

3)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된다. 첫째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어떤 행동이나 과정, 사건이 발생하는 폭넓은 사회적·정치적·역사적 환경이나 조건을 가리킨다. Tim O'Sullivan & John Hartley(eds.),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 and Cultural Studies*(London: Routledge, 1994), p. 63.

4) D. Morley, "Changing Paradigm in Audience Studies," in Ellen Seiter(ed.), *Remote Control* (London: Routledge, 1989), p. 135.

‘성 gender’에 따른 권력 관계가 시청 상황에 작용하는 방식을 프로그램 선택에서의 권력과 통제, 시청 스타일, 시청 계획, 텔레비전과 관련된 대화들, 혼자 시청하는 것과 죄의식적인 즐거움, 선호되는 프로그램 타입, 비디오 사용 등의 크게 일곱 가지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 선택에서 권력과 통제’ 문제는 가정을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권력 공간으로 보여준다. 물리는 가정을 남성들에게는 일의 공간인 바깥 세계와 대조되는 여가의 공간으로, 여성들에게는 하루종일의 가사 노동이 연장되는 곳으로 본다. 따라서 여성의 텔레비전 시청은 가사 노동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틈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텔레비전예의 몰두는 끊임없이 방해받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택면에서도 남성의 힘이 우위에 있는데,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한 가정의 가장인 남성이다. 연구된 가족들 중 여성(여기서는 어머니)이 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두번째로 ‘시청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그들의 시청 활동을 묘사하는 방법에서 상이함을 나타낸다. 남성들의 시청 스타일은 ‘몰두’에 바탕을 둔다. 그들은 침묵한 상태에서 방해 없이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이와 달리 여성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복합적인 활동’으로서 경험하는데,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끼여들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세번째로 ‘시청 계획’은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하는 점과 ‘계획적 시청이나, 무계획적인 시청이나’의 문제로서, 물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경우 주로 신문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만, 여성은 연예 잡지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많은 가십거리를 더욱 풍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청 계획의 문제는 미리 시청할 프로그램의 시간 계획을

짜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적으로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분리되고 있다.

네번째로 '텔레비전과 관련된 대화'에서 물리는 여성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 여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했지만, 남성들은 거의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표현적 *express*'인 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텔레비전 시청에서 더 적은 선택권을 가지고, 덜 몰두하지만,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번째로 '혼자 시청하는 여성들의 죄의식적인 즐거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 대상이 된 여성들 중 일부는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 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표현했다. 그 순간에 주부들은 그들의 가정 일에서 분리되어 평소에 남성들이 시청하는 것과 같은 몰두 속에서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침 연속극을 보는 여성들에게서 이런 즐거움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는 시청'은 여성들에게 약간의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섯번째로 '선호하는 프로그램 형태'는 성별에 따라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남성들은 '사실적인 *factual*' 프로그램, 즉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허구적인 *fictional*'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또한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가 연속극을 시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위로 여기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이외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제들(비디오와 같은)이 텔레비전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리는 『가족 텔레비전』 연구에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차별적인 시청 습관 *viewing habit*을 의미화하고, 이러한 차별의 다양한 이유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 III. 가족의 시·공간적 배경과 텔레비전의 사용

가족이라는 컨텍스트는 가족 성원들간의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가정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든스 Giddens에 따르면, 어떤 컨텍스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활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이 삶을 영위하는 가정이라는 공간은 시간적인 질서의 면에서는 '단일 시간성'보다 '복합 시간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sup>5)</sup> 가사 영역은 노동 영역과는 달리 활동이 복합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주부는 청소나 요리를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도 있고,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텔레비전을 동시에 보기도 한다. '시간의 질서' 면에서도 가족 성원들의 삶은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일이나 휴식이 할당되어 있는 회사와 달리, 시간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또 가정이라는 공간은 여가와 휴식의 공간일 뿐 아니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은 다양

5) '단일 시간성'은 활동을 단일하고 순차적인 시간 질서에 따라 조직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합 시간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 시간성이 공존하는 질서를 지칭한다. 이 두 개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조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단일 시간성' 문화는 특징적으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하며, 사건들은 서로 분리된 단위로 조직된다. 또 개인은 외적인 시간 질서, 외부에서 강제된 시간의 질서를 추종하고, 시간 엄수가 매우 중시된다. 이와는 달리 '복합 시간성' 문화는 가사 영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관여하고 있다. 또 미리 정해진 시간표에 충실한 것이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도 구체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한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에 동시에 관여되어 있다. 주부의 가사 노동은 반복적이고 회귀적이며, 가족이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독립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관례화되어 있는 습관으로 경험된다. 외부의 물리적 시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체험된 내적 시계를 따르는 가족의 일상이란 홍석경에 따르면, 끊임없이 '의미없음' '무질서' '텅 빔'이라는 비현실의 공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sup>6)</sup>

그러나 가정이라는 공간은 외부의 다른 사회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다. 가정은 바깥의 더 큰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시간의 사용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다. 즉 가정 외부의 사회 조직의 단일 시간성 문화는 복합 시간성이 우위인 가정 공간에 끊임없이 침투하게 되고, 따라서 가정에서 시간의 경험은 보다 복잡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매스 미디어의 사용은 단일 시간성이 가정 시간에 스며드는 중요한 현상이다. 방송 조직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프로그램 방영하는 단일 시간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프로그램 시청하는 가족들의 시간 개념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 시간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개별적인 가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가족의 경우는 다른 가족에 비해 더욱 더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가족은 시간을 규칙적이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면서 행동을 조직하려고 노력한다. 특별한 시간에 여가를 즐기는 것(스포츠나 외식)을 미리 정해놓거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가족의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시간을 사용

6) 홍석경, 「일상 생활과 텔레비전 시청의 시간성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 논문, 1996, p. 106.

하는 방식의 차이는 텔레비전의 사용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한 예로서 브리스 Bryce는 가족이 시간을 조직하는 상이한 방식이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즉, 단일 시간성의 가족은 텔레비전 시청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텔레비전 시청은 다른 활동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활동이다. 또 이들 가족에서는 텔레비전을 더 집중해서 시청한다. 이에 반해 복합 시간성 가족은 텔레비전 시청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거나, 거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텔레비전을 다른 활동을 위한 시계로 사용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려는 생각 없이 켜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복합 시간적인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은 여러 가지 활동들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인 집중도나 몰두의 정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의 공간적 배정'과 텔레비전의 사용에 관한 논의에서, 물리는 텔레비전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IV. 민속지학적 방법

지금까지 논의한 '컨텍스트'와 '텔레비전의 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민속지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왔다. 민속지학은 인류학에서 유래한 방법론으로 인류학에서는 학자와, 그 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 집단간의 오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문서적 기록을 말한다. 래드웨이 Radway에 따르면, 민속지학적 방법은 본래 한 집단의 사회 생활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은 사회에 속한 개인이 날마다 겪는 일상이 항상 역사와 문화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민속지학적 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sup>7)</sup>

7) 그래엄 터너, 김연중 역, 『문화 연구 입문』(서울: 한나래, 1995), p. 185.

따라서 민속지학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민속지학적 연구가들은 사회를 인간들이 언어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장소로 보고,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일처리 방식, 지각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나 문화의 성원들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속지학의 방법론은 특히 'ethnomethodology'라고 불리는데, 이 방법론의 중점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두고 있다. 그것은 사회 속의 사람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민속지학적 방법의 전제가 되는 것은 연구자의 '반영성 *reflexivity*'이다. 반영성은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연구할 때 연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이다.<sup>8)</sup> 연구자는 자신이 가진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대상이 되는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와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민속지학적 방법은 모든 문화에 보편적인 일반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들간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움'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속지학적 방법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사람들의 행동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보다 연구 대상이 속한 일상 생활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구 자료들을 얻는 방법에서 관찰과 비공식적인 대화

---

8) P. Willis, "Notes on Method," S. Hall & D. Hobson(ed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1980), pp. 91~93.

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구조적'이라는 점이다. 네번째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은 항상 공통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규모의 집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속지학적 방법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주로 언어적인 기술과 설명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의 의미와 기능을 해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문제

이와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한국적인 가족 컨텍스트'와 '텔레비전 사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이 설정되었다.

연구 문제 1. 가족의 권력 관계에 따른 텔레비전의 사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가족의 시·공간적 배경에 따른 텔레비전의 사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가족의 사회적 수준에 따른 텔레비전의 사용은 어떠한가?

### 4. 연구 방법

#### I. 연구 대상

이 글은 여섯 개 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가족은 사회적 수준에 따라 구별하였는데, 중심이 된 기준은 '경제력'과 '학력'이다. 부르디외의 Bourdieu는 『구별짓기』에서 '경제력'

과 '학력'을 문화의 소비와 취향을 차이나게 하는 문화 자본의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모든 문화적 실천은 '교육 수준(학위나 학교에 재학한 연수-학력)'과 '출신 계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가족의 차등적인 '학력'과 '경제력'으로 이루어진 차등적인 문화 자본이 그 가족이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구별화된 전략의 바탕이 된다. 먼저 가족의 경제력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가장의 직업'과 한 가정의 '가구 소득'이 된다. 가장의 직업은 한 가족의 계급적 위치와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가장의 직업'이 가족의 계급적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취업 부인의 수가 20% 미만이고, 취업 부인의 경우도 남편과의 계급 일치도가 65%나 되는 실증적인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sup>10)</sup> 또한 '가구 소득'은 가구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가구원 소득, 부업 소득, 재산 소득 등으로 다양한데, 이 글에서는 '월수입'과 '주택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보았다.

또한, 학력은 위에서 언급한 부르디외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소비와 취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부부의 학력은 가족에서 부부의 권력 관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된 각각의 가족 형태는 다음과 같다.

---

9)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서울: 새물결), 1996, p. 12.

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 사회』(서울: 경문사, 1995), p. 105.

가족의 사회적 수준<sup>11)</sup>

가족	직업	학력	월수입	자녀	주거	매체 이용
A-1	아버지: 사업가 어머니: 전업 주부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천만 원	아들(고1) 딸(중2)	아파트 소유(42평)	TV 2대, 비디오, 지역 유선, 케이블 가입(19개 채널), 컴퓨터
A-2	아버지: 의사 어머니: 전업 주부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천만 원	아들(중1) 딸(중3)	아파트 소유(42평)	TV 2대, 비디오, 지역 유선 가입(10 개 채널), 컴퓨터
B-1	아버지: 대기업 과장 어머니: 전업 주부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삼백만 원	딸(중3) 아들(국3)	아파트 소유(34평)	TV 2대, 비디오, 지역 유선 가입(10 개 채널), 컴퓨터
B-2	아버지: 대학원 계장 어머니: 전업 주부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이백만 원	큰딸(대1) 작은딸 (고2)	아파트 소유(34평)	TV 2대, 비디오, 지역 유선 가입(10 개 채널), 컴퓨터
C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전업 주부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백만 원	큰아들(22살) 큰딸(고졸) 아들(중3)	주택 전세	TV 1대, 비디오 없음, 지역 유선 가입(19개 채널)

## II. 연구 과정

이 글은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두 단계에서 민속지학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물리가 『가족 텔레비전』에서 사용한 ‘비구조화된 인터뷰 *unstructured interview*’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 참여관찰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주제를 드러내고 연구 문제의 해결에 바탕이 되는 진술들을 독립시키고, 그 언어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이론과 연결시켰다.<sup>12)</sup>

11) A, B, C 는 가족의 사회적 수준을 상·중·하로 나눈 구분이다. 뒷부분의 숫자는 가족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즉 A-1은 경제적 정도가 ‘상’에 속하는 가족 중에 1번 가족이라는 표시이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조직화된 인터뷰’와는 달리 인터뷰 질문의 내용·순서·언어 구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인터뷰의 대체적인 요점만을 적은 인터뷰 지침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적절하게 문항을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재량권을 가진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료를 수집하는 비계획적인 인터뷰 방법이다.<sup>13)</sup>

이 글에서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가족들의 텔레비전 사용’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텔레비전 시청 행위에서 질문의 요점은 물리의 『가족 텔레비전』 연구를 기본 모델로 하고 연구자가 상황에 따라 구체화하였다. ‘가족의 권력 관계’에 대한 질문은 각각의 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가족 성원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결정이 요구되는 가족의 일상 생활에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내용이었다.<sup>14)</sup>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방법을 통한 가족들의 텔레비전 시청 행위에 대한 연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참여관찰법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 저녁 시간대(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하는 가족들의 일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 5. 결과 및 논의

### I. 가족의 권력 관계와 텔레비전의 사용

가족의 권력 관계는 가족 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가족 관계를 묘

12) 이러한 방법은 앞서 민족지학적인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하면서 ‘두꺼운 기술적 글쓰기’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13) 김병진, 『현대조사방법론』(서울: 대경문화사, 1993), p. 265.

14) 인터뷰에 대한 구체적 상황과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됨.



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첫째, ‘권력의 근거’가 되는 경제력에서, 연구 대상 가족의 어머니가 모두 전업 주부였으므로 권력의 근거가 되는 경제력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수입의 사용을 계획하는 면에서는 상류 가족(A가족)과 중류 가족(B가족)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하였고, 하류 가족(C가족)만이 아버지가 수입의 사용을 결정하고 계획한다고 하였다.

- “가전 제품 같은 구입은 내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고 남편은 집안 일에 대해서 거의 돕지 않는다. 가족 수입의 관리나 결정도 내가 한다.” (B-2 가족의 어머니)
- “가정에 필요한 물건의 구입도 그렇고, 가족 수입도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다.” (B-1 가족 어머니)
- “물건 구입도 내가 필요하다 하면 아빠가 이거는 사야 된다 결정하지 이사 문제나 그런 것도 다.” (C 가족의 어머니)
- “글쎄, 잔잔한 것은 내가 결정해서 사지.” (A-1 가족의 어머니)

그러나 가족 수입의 사용과 결정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가족 생활에서 주부의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바깥일·가정일을 구분하고, 가정일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는 한국적인 가족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아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가정일뿐이지. 가정 외에 바깥일은 절대 안 구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체 이야기할 안 하지.” (B-2 가족의 아버지)
- “사무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일체 터치를 안 하고 남편이 주는 한도 내에서 산다.” (A-1 가족의 어머니)

다음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인 ‘영향력’ 면에서는 부부간의 성

에 따른 차별적인 권력의 양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 “별이나 잔소리는 아내가 많이 하지. 엄마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하지. 애들과의 문제에서 답은 맞는데 엄마가 설득력이 부족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로써 설득하면 애들이 많이 따라와. 가정을 다스리는 건 가장의 역할이고 그건 엄마가 못 하는 부분을 하는 거지.” (B-2 가족의 아버지)
- “의견이 틀리면 대토론이 벌어지지만 말을 시작하면 논리적인 면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깐 말로써 이것저것 따지면 내 의견이 꼭 관철 되지. 아내는 사회 조직에서 생활을 안 해보니깐 이해력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깐 내 말이 설득력이 있지.” (B-2 가족의 아버지)
- “잔잔한 것은 내가 뭐라 그러지만 큰일은 거의 아빠가 벌을 내리지. 애들이 잘못하면 아빠가 결정적으로 벌을 내리지.” (A-1 가족의 어머니)
- “우리를 야단치는 건 엄마지만, 엄마를 야단치는 건 아빠죠.” (A-2 가족의 딸)

마지막으로, 권력의 결과인 ‘의사 결정’의 면에서는 주로 가족 생활과 관련된 물건의 구입이나 주택의 문제에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만, 자녀의 장래 문제나 진로 문제는 부모가 함께 의논을 한다고 하였고, 여가 생활과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여가를 계획하는 것, 외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빠가 전부 다한다. 아빠가 소속된 모임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는 따라가고.” (B-2 가족의 어머니)
- “휴가 문제는 남편 따라 가는 거지. 남편의 휴가나 계획에 맞춰서.” (B-1 가족의 어머니)

- “거의 아빠가 휴가를 계획하는데, 애들은 잘 안 따라가려고 해도.”  
(A-1 가족의 어머니)

이외에 가족 성원들이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에서도 차별적인 권력 관계가 드러난다.

- “애들한테 엄마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애들 건강 신경쓰고 그러는 게 내 역할이지.” (C 가족의 어머니)
- “가장이 중심이 되서 집안을 다스려야지 기강이 서지.” (C 가족의 아버지)
- “남편은 전체적으로 생활을 책임지고 이를테면 집을 장만한다든가, 재산을 늘린다든가 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지고, 여자는 여자일로서 집안일로서 한정적인 일에 충실하고 애들 관리라든가 하는 일을 하면 된다.” (B-1 가족의 아버지)
- “만약 의견 충돌이 나더라도 상대방 하는 일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자가 남자 쪽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 주로 왜냐 하면 가장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니깐 그걸 믿고 전체적으로 후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B-2 가족의 어머니)

요컨대, 연구 대상 가족들에서는 한국적 가족 컨텍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안일·바깥일/아내일·남편일이라는 이중적인 구분과, 가사일에 대한 여성의 전적인 책임 부여를 통해서 권력이 가장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들의 의미화 방식을 통해서 ‘남성의 책임’은 ‘자잘한’ 가정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족을 통솔하면서 지배력과 지도권을 갖고 가족 생활을 지휘해야 한다는 한국의 가장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또 여성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역할로 국한시키고 있고, 자녀들을

통제하는 문제에서도 보다 더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에는 아버지가 더 큰 발언권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족의 권력 관계는 특히 부부간의 차별적인 '성'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시청 행위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먼저 '텔레비전 시청 행태'에서 성차는 '집중적인 시청'과 '비집중적인 시청'의 다른 시청 행위를 낳는다. 즉 남성들의 텔레비전 시청은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반면, 여성들의 텔레비전 시청은 다양한 가사 노동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

- “텔레비전 앞에서 딱 앉아서 보는 경우를 말하느냐?” (B-1 가족의 어머니)
- “아침에도 앉아서 볼 여가는 없고 애들 뭐 챙겨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지.” (C 가족의 어머니)

그러나 아버지의 시청은 텔레비전 앞에서 신문을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어머니의 텔레비전 시청은 가정 내의 의무와 역할 때문에 일상적인 가사 노동과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텔레비전 시청 행태의 차이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남편과 아내에게 갖는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데, 남성에게 가정이 외부의 노동 현장과 구별되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인 데 반해, 여성에게는 '작업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시청 행위는 가사 노동에 의해 끊임없이 분절되며, 프로그램에의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번째로, '프로그램 선택에서의 권력과 통제'는 한 가족의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다. 먼저 가지적인 현상으로서 '리모컨'은 거의 아버지가 쥐고 있으면서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에서 프로그램 선택을 결정하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통해 가족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거나('꺼버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선택과 관련된 아버지의 권력 행사는 자녀들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복수 수상기'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복수 수상기는 자녀들과 아버지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충돌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통제를 회피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모든 가족들에서 어머니의 '독립적인 시청'을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 두 대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어머니의 텔레비전 시청은 주로 가족이나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양보'로 경험된다. 즉, 권력이 가장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성에 따른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한국적인 가족 컨텍스트에서 어머니의 시청 행위는 가장 '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가족끼리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참아야 하고, 휩쓸려가지고 그냥 보는 거지 뭐, 같이 앉아서 리모컨은 남편이 거의 쥐고 있으니까, 바둑이나 골프 같은 나와 애들한테 전혀 흥미거리가 안 되는 거 하면은 애들은 댄 방에서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보는데 아빠가 별로 안 보는 쇼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나는 대부분 아빠랑 같이 보고 내가 댄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남편이 바둑 볼 때는 팔래나 청소 같은 다른 일을 하지.” (B-2 가족의 어머니)

세번째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화'에서도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들은 여성들과 달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라도 '사실적인 장르'인 뉴스 내용에 국한된다고 말한다.

-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하지. 뭐 하려 그런 얘기를 하나?” (C 가족

## 의 아버지)

- “별로 얘기하는 거 없지, 뭐 드라마가 어떻게 하는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뉴스는 얘기를 하죠. 뉴스는 가끔 얘기해도, 별로 텔레비전에 관해선 얘기 안 해.” (A-2 가족의 아버지)

그러나 여성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연속극과 관련해서 다른 여성들과 풍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 “집안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연속극 이야기 같은 거 하고 연속극이 어떻더라 그런 거, 저번에 그거 있잖아. 나이 많은 남자, 이정길한테 젊은 여자가 시집간 거(「부자유친」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다: 필자).  
앞전에는 이웃 아줌마들하고 그 얘기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아줌마들과 종종 전날에 본 연속극 이야기 많이 하지.” (C 가족의 어머니)
- “같이 모임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는 부분, 연속극에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지.” (B-1 가족의 어머니)
- “얼마 전에는 내가 있는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요즘 프로그램들은 여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은 무슨 바보처럼 보이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야…… 그때 모임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30~40대 부인들 우울증을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패배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고. 또 요 며칠 간은 나는 안 봤는데 다른 아줌마들이 그러던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했나봐. 거기서 ‘살찐 사람들

은 완전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매스컴이 가지게 한다는 얘기들을 했어.” (B-1 가족의 어머니)

- “그러니깐 주말에 본 연속극 내용은 다음날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많지. 저번에는 「목욕탕집 사람들」에서 고두심이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일 캐럿짜리 다이어 반지밖에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 (B-2 가족의 어머니)

이렇게 여성들은 특히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과 연속극의 내용을 관련지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화들은 연속극의 ‘현실성’을 의심하게 하거나(B-2 가족의 어머니), 텍스트의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B-2 가족의 어머니) ‘활동적’인 의미 해독의 바탕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물리는 여성들의 시청은 ‘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성들은 더욱 풍부한 ‘표현적인 *expressive* 문화적 부호들’을 가지고 특정 텍스트를 의미 해독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네번째로 ‘선호되는 프로그램 타입’은 모순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선호한다’고 말한 프로그램과 실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남성의 경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

15) 남성들이 “텔레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꺼려하거나,” ‘뉴스’의 이슈들에 대화의 내용이 한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나누는 텔레비전 대화들과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 삶에서 남성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사실적인 프로그램 내용 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 시청을 수치적인 활동으로 보고, ‘사실적인 장르’와 ‘허구적인 장르’를 차별적으로 서열화시켜 평가하는 남성들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결론들은 다음 장에서 성에 따른 권력 관계가 ‘장르의 부정적 의미화’에 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남성은 사실적인 장르인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특정한 연속극은 빠지지 않고 보고 있었고, 여성들은 연속극도 좋아하지만, 뉴스나 다른 사실적인 장르의 프로그램도 즐겨 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실적인 장르'와 '허구적인 장르'로 구분하고, 각각을 '남성적 장르' '여성적 장르'로 나누는 물리의 구분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어떤 타입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성원들이 그러한 특정한 장르를 의미화하는 방식과 그 속에서 얻는 구체적인 즐거움의 차이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성의 효과'는 프로그램 선호보다는 '텔레비전 자체가 가족들에게 의미화되는 방식'과 '장르가 의미화되는' 두 가지 방식에서 발견된다.

## II. 텔레비전 장르에 대한 의미화

먼저 연구 대상이 된 가족의 아버지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면서 '덜 중요한' 매체로 간주한다.

- “텔레비전이 없다고 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애. 별로 정보가 될 만한 것은 없으니깐. 그래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좀 낫지. 난 우리 아들이 다큐멘터리 보는 걸 보면 대견해.” (B-1 가족의 아버지)
- “텔레비전이 없으면 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지. 신문과는 달리 텔레비전은 시간이 절약되고 크게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깐 쉽잖아. 그래서 볼 뿐이지 뭐. 신문은 읽고 이해해야 하니깐, 여러 가지 골똘히 생각해야 하니깐 귀찮고.” (B-2 가족의 아버지)
- “뭐 텔레비전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것저것 구질구질하게 본다.” (C 가족의 아버지)



아버지들은 이와 같이 텔레비전이 '정보가 없고' '단순하며' '여성 위주'의 매체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청을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남성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사실적인 장르'에 대한 선호와 관련시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남성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쓸모 없는' 텔레비전 시청에서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려고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다.<sup>16)</sup> 결국 남성들의 '사실적인 프로그램' 선호는, 실제 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기보다는,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연결된다.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남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들의 가치를 위계짓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아버지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사실적인 장르'는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연속극'과 같은 '허구적인 장르'는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한다. 남성들은 연속극이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며<sup>17)</sup> (A-2 가족의 아버지, B-1 가족의 아버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몰입시키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A-2 가족의 아버지) 비판한다.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족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남성들의 장르에 대한 의미화, 즉 프로그램의 가치를 서열짓고 구별짓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가족 성원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

16) Morley, 앞의 책, p. 106.

17) 그러나 여성들은 연속극의 '현실성'에 대해서 남성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연속극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이유는 흡선이 밝힌 '상황적인 즐거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은 연속극의 개별적인 내용이 실제 삶과 일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이 아니라, 연속극이 다루고 있는 가족 위주의 소재와 등장인물(머느리 · 시어머니 등), 갈등의 내용(가족에서의 남녀 평등, 고부간의 갈등)이 여성의 삶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예: B-1 가족, B-2 가족, C 가족의 어머니들).

게 된다. 남성, 즉 아버지의 장르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는 '담론화된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에 대한 '배제'와 '부정'의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의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드라마나 연속극 그런 거 왜 봐. 드라마는 비현실적이고 차라리 영화를 보지. 드라마는 지지부진하고.” (B-1 가족의 아버지)
- “「만남」 같은 아침에 하는 연속극은 내가 일어나면 아내가 켜놓고 보고 있으니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아침에는 주로 여성을 위주로 하는 게 많으니깐 관심 없이 신문을 보지.” (B-2 가족의 아버지)
- “이 사람은 연속극 하면 정신없다. 연속극 그거 뭐라고 정신없이 본다.” (C 가족의 아버지)

이러한 담론화된 권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족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게 되는데, 첫째는 다른 가족들의 특정 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방식이다. 이것은 텔레비전을 꺼버리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통제를 말한다.

- “즈그 아빠는 애들이 보는 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의사 물어볼 것 없이 들어와서 꺼버려요.” (A-1 가족의 어머니)
- “「아이싱」 할 때는 아빠가 '뭐 저런 거 보냐'면서 돌려버려서 더운 날 인데도 안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두고 봤어요.” (A-1 가족의 딸)
- “뭐 그거 재미있다 그러데 그러면,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지 마라. \*\*\*가 너무 재미있어 하데 그러면, 야냐 내가 봤는데 재미없어, 그러니깐 보지 마, 그러면 못 보니깐 얘기할 게 별로 없고…… 옛날에 왜 「모래성」인가 그 프로그램도 많이 떠들어댔잖아. 그때도 못

보게 해서 나는 엄마들 얘기하는 것만 멍하니 듣고 그랬어.” (A-2 가족의 어머니)

- “내가 연속극 좀 몰라 하면 싫은 소리를 한다. 스포츠 중계하고 연속극 겹치면 그거 못 보고 …… 왜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건 다 늦은 시간에 하니깐 혼자서 가족들이 잘 때도 보는데 그거 아빠가 못 보게 해서 뭐 텔레비전 꼬라고 야단이야.” (C 가족의 어머니)

두번째 시청 통제 효과는 여성들이 남성적인 헤게모니를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통제를 경험하게 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레이 Gray가 “가족 내에는 진지한 것과 어리석은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위계를 정의내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성원이 있다. 이러한 힘은 여성과 그들의 즐거움을 저급한 것으로 의미짓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비밀 속에 물어두게 하는 힘이다”<sup>18)</sup>라고 밝힌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가족 내의 여성들은 연속극과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도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어리석고’ ‘나쁜 것’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낮은 지위를 부여하는 남편의 헤게모니를 수락하기 때문이다. 연속극에 대한 B-2 가족의 논쟁에서 이러한 사례가 드러난다.

- “드라마나 연속극 그런 거 왜 봐.” (남편)
- “우리 실제로 연속극을 많이 보는 거 아냐. 「목욕탕 집 사람들」 그거는 당신도 많이 보잖아. 그거하고 8시 30분에 하는 「사랑할 때까지」 그거하고. 그것밖에 없어.” (아내)
- “그래도 다슬이는 많이 보잖아?” (남편)
- “난 몇 번밖에 안 봤어요. 엄마가 「목욕탕집」 보니깐 보는 거고 「신고합니다」도 몇 번 안 봤고.” (딸)

---

18) Morley, 앞의 책, p. 180.

### (B-1 가족의 논쟁 중에서)

또 자녀들의 시청 통제에서도 '프로그램의 가치를 서열짓는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실적인 장르'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권장되고, '허구적인 장르'는 '비교육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프로그램 선택에서 아버지는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하게 되고("애들하고 같이 보는 건 스포츠·뉴스 정도랄까 그외에는 다 꺼버리니깐": A-1 가족), 어머니는 자녀의 시청 행태를 걱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재는 삼각 사각 관계 그런 거 너무 좋아해": B-2 가족의 어머니) 등 '간접적인 통제'를 행사한다.

'허구적인 장르'가 가족들의 '성'에 따라 차별적인 선호와 평가를 받는 반면, '뉴스'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부는 모두 뉴스는 빠뜨리지 않고 본다고 하였고, 텔레비전을 별로 보지 않는다는 가족도 뉴스는 꼭 본다고 한다. 여기서 뉴스는 프로그램 선호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 III. 가족의 시·공간적 배경과 텔레비전의 사용

가정의 시간적 배경과 가족들의 시간 사용에 따른 텔레비전 사용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 사용'이다. 가정의 일상상은 외부적인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 사회의 노동 공간과는 달리 특별한 규칙이 없는 반복적이고 회귀적인 일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일상상은 '습관'에 의해 구조화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19) "뉴스는 보고, 텔레비전을 별로 안 보니깐 할말은 없는데 뉴스는 거의 안 빠지고 보고." (A-1 가족의 어머니)

"뉴스는 주로 9시 뉴스는 꼭 보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뉴스거리 있는지 보고."  
(B-1 가족의 아버지)

먹고, 바깥의 공간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은, 일상을 낫설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반복되는 가정의 '의례' 이고 '습관' 이다. 텔레비전 역시 이러한 의례적인 가족 삶의 일부로서 '습관적' 으로 시청된다.

- “주말에는 본다기보다는 켜놓고 그냥 있는 거지. 어떤 걸 보는 게 아니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켜놓고 앉아 있고 중독 같애. 습관적으로 켜는 것 같고.” (A-1 가족의 어머니)
- “텔레비전이 꺼지는 경우는 없다. 24시간 도니깐.” (B-2 가족의 아버지)

이러한 습관적인 텔레비전 시청은 가족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홍석경은 텔레비전 시청은 일상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각인된 행위로서, 사람들은 마치 특정 시간에 전깃불을 켜듯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켜거나’ 수도꼭지나 가스를 틀 듯이 수상기를 ‘튼다고’ 말한다.<sup>20)</sup> 즉 가정의 일상에서 ‘습관적인 시청’은 텔레비전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소비하게 하는데, 텔레비전은 단독의 프로그램이 독립되어 ‘의식적’으로 시청되는 경험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의 전후를 연결하여 ‘시간적인 흐름’으로 소비된다.

두번째는 텔레비전의 시간과 가정의 시간이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홍석경에 따르면, ‘복합 시간적인’ 가정의 일상과 ‘단일 시간적인’ 텔레비전 매체가 ‘동시화’ 되는 현상이다.<sup>21)</sup> 텔레

20) 홍석경, 앞의 책, p. 107.

21) ‘복합 시간성 문화’는 특징적으로 가사 영역과 같은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 시간성의 상황에서 한 개인은 뚜렷이 구분된 일과 책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의 여성들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관계에 동시에 관여되어 있다. 복합 시간성 문화에서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그리 구체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비전 시간과 가족 시간의 동시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텔레비전 시청이 가족의 시간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거나, 텔레비전을 켜면서 가족을 깨우는 활동(A-1 가족),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끄면서 잠자리에 드는 모든 사례들은 텔레비전의 시간적인 흐름이 가정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뉴스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 장르가 반복적으로 시청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뉴스와 같은 특정 장르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시간 사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족들의 의례적인 활동(기상, 식사, 취침 전 시간)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시청된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가족 집단이 시간을 사용하는 상이한 방식이 텔레비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족들의 시간 사용이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류 가족의 경우(주부의 오전 시간의 활용, 자녀들의 과외나 학원)는 텔레비전을 '습관적'이기보다는 '보다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청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족들이 시간을 덜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하류 가족의 경우는 '습관적인 시청 행위'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하류 가족은 텔레비전을 늘상 켜두면서 시계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시간과 가정 시간이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정도는 가족 성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부의 시간 사용에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은 거의 분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부는 두 가지 시간을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덜 집중된' 시청 행태를 보이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족 단위의 텔레비전 시청은 주로 주말의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텔레비전 사용에서 남성의 권

---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시간표를 만들거나 일의 진행을 기획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한다.

력이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IV. 가족의 사회적 수준과 텔레비전의 사용

가족의 사회적 수준에 따른 텔레비전 사용 문제에서 텔레비전 사용의 차이는 텔레비전 시청량,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의미화, 장르에 대한 의미화, 시청 통제, 여성들의 연속극 의미 해독의 네 가지 항목에서 나타난다.

먼저, '텔레비전 시청량'은 상류 가족이 가장 적고, 중류 가족과 하류 가족은 더 많은 편이다. 상류 가족의 시청량이 적은 이유는 이들 가족들이 '의식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들 상류 가족은 습관적인 텔레비전 시청을 막기 위해서 '금요일의 규칙(금요일은 텔레비전 안 보는 날)' 등을 정해두거나, 저녁에는 일부터 텔레비전을 꺼두기도 한다. 이에 비해 중류 가족은 주말에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두기 때문에 상류 가족에 비해 시청량이 많다. 모든 가족들 중에서 하류 가족은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데, 평일의 오전과 저녁 시간, 주말에 습관적으로 켜두고 텔레비전이 시계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하류 가족의 여성은 다른 가족 집단의 성원들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오전중에 특별한 여가 활동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저녁에도 남편이 잠든 후까지 계속 텔레비전을 본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가족 집단별로 텔레비전 시청량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족 성원들의 '상당한 시간 사용(아버지의 출퇴근 시간, 주부의 여가 활동 정도)'의 영향도 있지만, 각 가족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의미화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상류 가족은 부부 모두가 텔레비전 시청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한다. 상류 가족의 부모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다른 활동에 비해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 통제로 이어진다("텔레비전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걸 해

라고 하신다" "텔레비전을 켜두면 애들이 정신이 산만하고 흠뜨려지니까 일부터 꺼둔다"). 그러나 중류 가족은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버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하류 가족의 경우는 아버지가 텔레비전 시청을 쓸모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어머니는 텔레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류 가족과 하류 가족은 상류 가족과 달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거의 통제하지 않거나' '적은' 통제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상류 가족이 '텔레비전 시청'을 더욱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는 현상은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화된 문화 산물은 학력 자본이 높고 계급적 위치가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부되는데, 이러한 대중적인 문화 산물에 대한 거부를 부르디외는 '구별짓기 *distinction*'로 개념화한다. '구별짓기'는 만인에게 적합한 것, 평범하고 '쉽고'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서,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면서 계급 분화와 계급 구조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상류 가족의 텔레비전에 대한 의미는 이러한 '구별의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르에 대한 의미화'의 문제에서, 모든 가족의 남성들은 연속극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sup>22)</sup> 이러한 의미가 시청 통제로 연결되는 방식에서는 다소 상이점을 보인다. 상류 가족과 하

22) 연속극 시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미화는 '순수 취향'이 '야만적인 취향'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문화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들은 고급 문화와 같은 문화 산물의 소비 방식을 더 호의적인 것으로 본다. 고급 문화는 일정한 '거리두기'의 방식으로 소비되는데, '거리두기'의 문화적 소비는 감정의 순간적인 몰입을 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속에서 벌어지는 허구적인 내용에 맞추어, 웃거나 우는 등의 감정 소모가 행해지는 연속극은 유치한 '야만적 취향'이 되는 것이다.



류 가족의 경우 남성들의 연속극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화는 '직접적인 시청 통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중류 가족은 상류 가족과는 달리 아버지나 남편의 연속극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직접적으로 여성의 시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적'인 '간접적 통제'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중류 가족의 여성들은 부분적으로는 남성의 연속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공유하고 있지만("바보 같다" "연속극 우리도 많이 안 본다"), 다른 부분에서는 연속극의 긍정적인 면을 들어 남성의 논리에 반박하기도 한다("연속극의 감성적인 면은 배울 게 많다" "흥미 본위의 연속극도 있지만, 교육적인 연속극도 있다") 이러한 중류 가족 여성들의 시청 통제에 대한 반응은 연속극의 의미 해독의 문제와 직결된다.

중류 가족 여성의 비판적인 의미 해독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등장인물의 비전형성'이나 내용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

- "그 집안의 장남은 텔레비전이 만들어놓은 인간이야."
-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인데, 처음에 시작은 아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여자들 권위가 너무 많이 향상되었고, 거기서 또 웃기는 건 양희경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자기 아들들은 꼭 잡고 있으면서 딸은 마음대로 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윤여정이 남편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주 비현실적이지 뭐, 양희경이랑 송승환 같은 부부도 그런 사람은 없지" —「목욕탕집 남자들」에 대해서. (B-1 가족의 어머니)
-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여성들이 그만큼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 세대도 아닌 할머니가 그런 개혁 바람을 일으키다니."
- "작가가 요즘 우리 서민들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B-2 가족의 어머니)

또 이들 중류 가족의 여성들은 특정한 연속극의 내용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미디어 텍스트의 본성을 깨닫고 있다. 중류 가족 여성들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메타 담론들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연속극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 "난 그거 세 번 봤는데 마땅찮더라고, 여론이 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30~40대 여자도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신문에도 계속 나더라고, 월가알부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하더라고, 불륜에 대한 게 여론화되고, 너무 심하면 물의를 일으키겠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서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 —「애인」에 대해서. (B-1 가족의 어머니)
- "요즘 들어서는 처음과는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잖아. 처음에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남자 위주였다가 요즘은 …… 근데 그렇게 여성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싶으면 남자들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는 것 같다." (B-2 가족의 어머니)

이렇게 중류 가족의 여성들이 연속극을 '비판적'으로 의미 해독하는 반면, 상류 가족의 여성들은 연속극을 잘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류 가족의 여성들은 대부분의 연속극을 시청하고 있었지만, '재미'만을 강조할 뿐 풍부한 의미 해독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글은 텔레비전의 사용을 가족 성원들의 실제적인

일상과 언어에 접근하여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으며, 가족 구성원들간의 권력 관계가 텔레비전 사용에 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 수 있었다. 즉 시청 통제는 직접적으로 행사될 뿐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장르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통해서 다른 가족성원들의 취향을 배제하는 간접적인 통제의 방식으로 발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의미하는 방식은 권력을 가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직접적인 시청 통제가 행해지는 상류 가족과 중류 가족의 경우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즐거움'으로 텍스트를 해독하지만, 시청 통제가 '헤게모니적인' 과정을 거치는 중류 가족의 여성들은 '비판적인 의미 해독'을 보여준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가족들의 사회적 수준에 따라 시청 행위에 권력이 작용하는 방식과 장르가 의미화되는 다양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들의 사회적 수준에 따른 텔레비전 사용의 차이는 대중화된 문화 산물을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향의 위계를 지우는 사회적인 담론들의 '구별짓기'가 가족들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화된 문화 산물은 학력 자본이 높고 계급적 위치가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부되는데, 이러한 구별과 거부의 담론들과 방식들이 사회적 수준이 다른 가족들의 텔레비전 시청 행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앤드루 굿윈, 게리 웨넬 편, 『텔레비전의 이해』, 서울: 한나래, 1995.  
존 코너, 신태섭 역, 「의미, 장르, 콘테스트」, 쿠란 쿠레비치, 김지운 역,  
『현대 언론과 사회』, 서울: 나남, 1993.

- 홍석경, 「일상 생활과 텔레비전 시청의 시간성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  
철 정기 학술 논문, 1996.
- Ang, Ien, "Watching Dallas," in Martin Barker, Anne Beezer(eds.),  
*Reading into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2.
- Bausinger, Hermann, "Media, Technology and Daily Life," *Media, Culture,  
and Society* 6, 1984.
- Biltrey, Daniel, "Qualitative Audience Research and Transnational  
Media Effect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 2),  
1995.
- George Bryan, Ray, "An Ethnography of Speaking in an Appalachian  
Community," University of Washington, ph.c, 1983.
- Hammersley, Martyn, *Reading Ethnographic Research: A Critical Guide*,  
London: Longman, 1990.
- Hymes, D., "Toward Ethnographies of Communication," in Pier Paolo  
Giglioli(ed.), *Language and Social Context*, London: Penguin  
Books, 1972.
- Liebes, Tamar, Sonia Livingstone, "The Structure of Family and Romantic  
Ties in the Soap Opera," *Communication Research* (21: 1), 1994,  
12.
- Linne, Olga, Paul Hartmann, "Family Differences on Televis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 4), 1986.
- Morley, David, Roger Silverstone, "Domestic Communication," *Media,  
Culture, and Society* (12: 1), 1990.
- Morley, David, *Family Television*, London: Routledge, 1991.
- , *Television Audience & Culture Studies*, London: Routledge, 1992.
- Nightingale, "What's 'ethnographic' about Ethnographic Audience  
Research?" Graehame, Turner(ed.), *Nation, Culture, Text*,  
London: Routledge, 1993.

- Pitchie, L. Davi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Communication Research* (18: 4), 1991.
- R. Lindolf, Thomas(ed.), *Natural Audience*, New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3.
- Seiter, Ellen, Hans Borchers(eds.), *Remote Control*, London: Routledge, 1989.
- Silverstone, Roser,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1994.
- , "From Audience to Consumers: The Household and The consumption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6, 1991.
- W. Kubey, Robert, "Television Use in Everyday Life," *Journal of Communication*, Summer, 1986.